



제2364호 2019년 7월 7일

연중 제14주일

참된 거처에로의 초대, 평화의 인사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천막을 치실 때(요한 1,14)의 첫 장소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둔 가정이었다. 그 후 열두 살 되던 해,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특별히 율법 교사들 가운데 자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루카 2,46,49)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땅에서 머리 기댈 곳(루카 9,58)을 찾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최소한의 거처였던 초막(루카 9,33,37; 탈출 16,16: 광야생활에서의 천막)도 거부하신다. 사람 손으로 지어낸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바위를 깎아 만든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무덤도(루카 23,53) 그분의 거처가 될 수 없었다. 결국 그분께서는 하느님 오른쪽(사도 7,56)으로 가셨으며, 마지막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묵시 21,2,22-23)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노선을 걷는 듯하다. 베드로를 예로 들자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즈음 장모와 함께 지내던 집(루카 4,38-39와 병행구)에서 출발해 성전에서 머물던 시기를 거쳐(루카 24,53) 땅이나 집을 내어놓는(혹은 포기하는) 공동체의 삶을 산다.(사도 4,34) 이미 베드로는 주님께서 차려놓은 식탁(요한 21,9)을 향해 뛰어든 적이 있는데,(요한 21,7) 베드로로서는 준비할 수 없는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을 위한 자리(이사 55,1)에 뛰어든 모습과 같다. 이와 연계해 마지막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이 거저 주어지는 곳으로 묘사된다.(묵시 21,6;22,1)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분께서 최후에 머무시는 거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베드로의 이 전환점에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인사가 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이후 예수님께서선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신다.(요한 20,22-23) 복음서에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첫 번째 때를 중풍 병자를 고친 때로 묘사한다.(루카 5,17-26과 병행구) 중풍 병자는 모든 것이 어긋나있던 신체를 회복하여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집은 중풍 병자에겐 치유 이전과는 색다른 집이 된다. 이는 노아 때 모든 것이 어긋나있던 상황(창세 6,5)이 극복되어 새 거처로 향하는 길이 열렸음과 연결되는 듯하다.(창세 8,11)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던 성령계신(루카 3,21-22와 병행구) 믿는 이들에게 전달되어 이 길로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때문에 예수님께서선 길에서 만나는 이가 아닌, ‘이 집(아직도 미적거리는 자리)’에 머무는 이들에게 ‘평화의 인사(죄의 용서를 이루시는 성령)’를 건네라고 하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건네어진 성령의 도움 아래 참된 거처로 발길을 내딛자.



김유태 비오 신부 | 대방동본당 보좌

주일 진례

- 입 당 송**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 본 기 도**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수난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이사 66,10-14ㄸ
- 화 답 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제 2 독 서** 갈라 6,14-18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 음** 루카 10,1-12,17-20
- 영 성 체 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당나귀왕자 메시아5. 구원자 행세하는 이들

자유를 위하여!

걱정 마세요. 난 아가씨를 보호하고, 초록 괴물로부터 구하러 온 기십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부자돈 훔쳐서 가난한 자 주는 욕심 없는 자,

여자 구해내는 덴 전문가, 멋있는 로빈훗!

난 언제나 당당히 싸우길 원해. 하지만 공짜로는 절대로 안돼!

나쁜 도깨비야 아가씨를 납치하면 안 돼. 나쁜 녀석들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나.

이제 내 칼을 받아라!

쫄꼬만 게!(You공주, little!) 감히, 우릴 막아? (영화, 슈렉)

성을 탈출해 길을 가는 공주와 슈렉 앞에 난데없이 공주를 구하겠다는 자가 나타납니다.

구원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병원에는 의사가, 나라에는 정치인이, 교회에는 사목자가 있습니다. 프로운동선수, 연예인도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수많은 기업도 구원자를 자처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면 구원받을 것이라 소리높입니다.

실제로는 구원자 행세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상대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건 무조건 맞고 남이 하는 건 틀렸다고 합니다. 미소로 다가오지만, 결국 ‘감히’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쫄꼬만 게, 별것도 아닌 게, 라는 말들이 따라옵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그저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받쳐줄 존재일 뿐, 제 뜻대로 좌지우지 이용하고 싶은 소유물, 지배 대상일 뿐, 절대 구원해 줄 의도가 없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잘해주려 하는 데 따르질 않는다고 역정을 낸다면, ‘네가, 쫄꼬만 게 감히’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 구원자가 아닙니다.

p.s. 연인의 탈을 썼을 땐 더 조심하세요.

성산복지관 2019 여름김장 나누기

지난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올해도 건강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에 있는 이웃,

가족이 있으나 돌봄을 받지 못해 힘든 이웃,

무더위로 인해 입맛까지 나지 않아 건강이 염려되는 우리 이웃을 위해
여름김장을 합니다.

지역주민이 거들어 만원의 행복으로 건강한 여름을 찾아주세요.

단기모금기간 : 7. 12.(금) 까지

후원계좌 : 경남 580-07-0011610 성산복지관 (입금시 김장+성함)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 문 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 교구 신학생 하계연수



|여름 방학을 맞은 교구 신학생들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가톨릭 교육관에서 하계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신학생들이 노동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광주와 부산에서 떨어져 살던 신학생들이 함께 하여 형제애를 나누는 자리도 되었다.

NEWS

● 사파동성당 설립 30주년 본당의 날



| 사파동성당(주임: 조정제 오딜론 신부)은 6월 23일 30주년 본당의 날 행사를 하였다. 문성대학교 체육관에 9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감사의 기념미사를 드렸고, 각종 놀이 마당을 열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본당의 날 기념품으로 우리농 쌀을 나누었다.

NEWS

● 제4회 통영여성영화제 개최



| 통영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에서 7월 4일부터 5일까지 롯데시네마 통영점과 내죽도공원에서 '제4회 통영여성영화제'를 개최하였다. 노년의 성장을 다룬 '할머니 배구단', 성희롱 문제를 다룬 '아니타 힐', 싸움보다 꽃을 좋아하는 황소 이야기 '페르니단드'를 상영하였다. 통영여성영화제는 여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소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NEWS

● 순결하신 어머니 브레시디움 1000차 주회



| 명서동성당(주임: 최재상 마티아 신부) 순결하신 어머니 브레시디움(단장: 박지안 올리아나)이 6월 26일 1000차 기념주회를 가졌다. 6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지만, 10명의 협조단원을 두고 있다. 순결하신 어머니 브레시디움은 레지오의 기본 목적(단원들의 성화로 하느님께 영광)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브레시디움이다.

NEWS

● 말씀침묵피정



|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담당: 이원태 클레멘스, 단장: 강동주 세례자 요한)는 '말씀침묵피정'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산청 성심원에서 열었다. 111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작은 형제회 소속 김정룡 루피노 수사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오승민 스테파노 수사는 '이콘'에 대하여, 김 루피노 수사는 '다미아노 십자가'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참여자들은 강의와 더불어 개인 묵상시간과 고해시간을 가지면서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NEWS

지구 온난화는 인간 행위의 결과입니다.

지구를 학대한 결과로, 이제 우리가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활동들이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심각한 문제지만 인간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해수면은 2100년에 1.5미터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1마일(약 1.6km) 이내에 살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약 6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것이고 기후 피난민이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식물과 같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온이 단지 1.5도만 올라가도 20~30%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쌀과 밀, 그리고 옥수수 수확량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또한, 온난화는 물고기의 서식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해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이제는 점점 더 멀고 깊은 곳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지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 대처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머니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쉽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3R 곧 감소(Reduce)와 재사용(Reuse) 그리고 재활용(Recycle)입니다. 감소는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

장 좋은 방법은 음식, 에너지 또는 상품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사용은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은 쓰레기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폼을 통한 의복과 가구의 재사용은 그 예들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3R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굉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주인에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인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R 운동은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인 신학생이 바기오 지역 신문(Baguio Midland Courier)에 기고한 글(영어)의 한글판입니다.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구원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제 5

어떤 사제든지 날카로운 첫미사의 기억은 의미 있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1992년도 8월, 뜨거운 여름날 첫미사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꺼운 겨울 제의를 입었어도 덥기는커녕 땀이 그리 즐거웠던지... 그리고 이만큼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점점 제의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 명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짐을 잘 지고 가게 하소서. 아멘.>이라는 제의를 입으며 올리는 기도는 점점 제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주님의 명에와 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알았다면...

한 남자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남자가 주님께 “제가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계셨냐?”고 따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없이 그 남자가 살아온 발자국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살아온 삶의 발자국은 한 사람 자국뿐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난 남자가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큰소리를 치자, 주님께서 발자국 뿐 아니라 전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남자를 업고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명에는 소가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입니다. 우리나라 명에는 소 한 마리가 걸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명에는 두 마리가 함께 걸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고참 소가 명에를 걸고 그 옆에 신참 소를 함께 걸어서 일을 배우게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한 쪽 명에를 거시고 저에게 명에를 같이 걸자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명에는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제의 명에인 제의야말로 주님께서 함께 걸고 가시는 아름다운 명에인 것입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68년 만의 귀환

김형진 레오님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전율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제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 별한 아버지를 68년 만에 만났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아버지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부친 김정권 이등중사 유해가 발굴되어 가족들에게 전해져 감격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건 지난해 7월이라고 했다. 6·25전쟁이 발발되고 징집된 후 이제야 유골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기적이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아픈 유월을 맞아 현충일을 보내고, 6.25를 보내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바치면서 태평동성당의 레오님을 자주 떠올렸다. 수년 전에 마산교구보 인터뷰를 위해 그를 만난 인연이 고작이었지만, 덩달아 기쁨을 나누고 그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133,192명의 실종자 중 유골을 수습한 분이 11,372명이고, 그 중에서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여 가족 품으로 돌아간 분이 단 128명뿐이었다. 129번째로 김정권 이등중사가 가족 품으로 돌아온 것. 68년이나 파주 광탄면 박달산 기슭에 외롭게 묻혀 있던 그 부친의 부활이었다.

“99.999% 일치하는 유골을 찾았다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황광지 가타리나 • 수필가

에서 연락한 7월 5일은 공교롭게도 내 생일이었고, 내 아들의 생일이기도 해서, 3대가 태어난 날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기도 소리를 높였습니다.”라고 하는 레오님의 말을 듣는 나도 참으로 놀라웠다.

“여보”라고 한 번 부르지도 못해보고 헤어졌던 당시 스물한 살의 산모는 이제 통영노인전문병원에 누웠지만, 살아 생전에 신랑을 상봉하게 된 기적의 기쁨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당시 스물세 살의 신랑을 떠나보내고, 핏덩이 아들과 보낸 지난 한 세월을 기워 갚고도 남지 않았겠는가. 한발이라도 늦었으면..., 전해 듣는 나도 절로 감사의 기도가 넘쳐흘렀다.

그들 모자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마태 25,1)처럼 언제든지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오랜 세월 희망의 실마리를 놓지 않고 소중히 살아온 그들을 축복했다. 지금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염원을 담은 일들이 어렵게 또 조심스럽게 펼쳐지고 있다. 유골로 돌아온 분들의 공이 헛되지 않게, 유골조차도 찾지 못한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평화가 와야 한다. 레오님의 가족에게 내린 기적과 평화가 한반도에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교구장 동정

일 시 : 7. 4.(목)~8. 20.(화)
내 용 : 미국 한인천주교회
교포사목 사제 사목방문

 교구·분당

■ **교구 말씀봉사자 집중교육**

일 시 : 7. 8.(월)~10.(수) 3일
장 소 : 교구청 강당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 **신학생 영신수련(대학원 1학년)**

일 시 : 7. 10.(수)~8. 8.(목)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청년 피정**

일 시 : 7. 13.(토)~14.(주일) 1박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055.249.7065

■ **예비신학생, 여성소자 모임**

일 시 : 7. 14.(주일) 10: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위원회·기관·단체

■ **M.E 월례회**

일 시 : 7. 8.(월)
장 소 : 교구청

■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이해(미사와 특강)**

일 시 : 7. 8.(월) 19:30
장 소 : 교구청 강당
주 최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

일 시 : 7. 8.(월) 19:30
장 소 : 교구청
주 최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신앙대학 심화과정**

일 시 : 7. 13.(토) 13:00
장 소 : 교구청
주 최 : 사목국 055.249.7021~3

■ **체나콜로(다락방) 7월 월기도 모임**

일 시 : 7. 22.(월) 13:00~15:00
장 소 : 상평동성당(미사집전)
문 의 : 회장 010.9399.5454

 수도회

■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 시 : 7. 14.(주일) 14:00~17:00
대 상 : 만23세~만38세, 남·여
장 소 :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 의 : 02.929.4841 www.columban.or.kr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과 여름해변 또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일정 포함)
일 정 : 7. 19.~21./ 7. 27.~30./ 8. 1.~4./
8. 6.~8./ 8. 10.~13./ 8. 15.~18.
문 의 : 02.773.1463/ 064.756.6009

■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 대피정**

일 시 : 7. 19.(금)~21.(주일) 2박3일
대 상 : 중고생 대학입반(35세 이하 미혼 남성)
장 소 : 충남 태안 살레시오 피정센터
문 의 : 010.5159.3949, 010.3894.1332

■ **가르멜산의 성모 재속 맨발 가르멜 회원모집**

일 시 : 7. 22.(월) 10:00 매 3주(월)
자 격 : 만 50세 이하 남녀
장 소 : 마산 가르멜수도원
문 의 : 회장 010.3847.9632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 8. 17.~18./ 9. 28.~29.
3박4일 : 7. 27.~30.(39세미만 청년)/ 8. 1.~4.
8박9일 : 8. 7.~15./ 9. 18.~26.
40일피정 : 9. 16.~10. 25./12. 13.~2020. 1. 21.
장 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 의 : 010.4906.5722/ 031.953.6932

■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피정**

일 시 : 8. 7.(수)~11.(주일)
장 소 : 서울 성베네딕도회 피정의집
비 용 : 36만 원/36명(1인실)
지 도 : 허 가브리엘 신부 외
신 청 : 010.3827.0092(김 데레사)

■ **제22회 MSC 슈발리에 마음축제**

일 시 : 8. 9.(금) 16:00 ~8. 11.(주일) 14:00
장 소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본원
대 상 :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50명 선착순
참가비 : 6만 원
주 관 : 예수성심전교 남녀 수도회
문 의 : 010.8811.6187

 기타

■ **부산교구 <혼인강좌> 교수 초빙**

분 야 : 심리학 및 유관 학문
서 류 : 이력서, 교적, 박사학위증 사본
제 출 : 7월 말까지 / 우편접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8-7 가정사목국
문 의 :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30년 일본성지순례전문**
나가사키&오사카

배/드/로/여/행/사
대표 노정삼 배드로
051.442.5730
010.3884.4590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전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품격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Asiana Airlines	스페인, 파타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KOREAN AIR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Lufthansa	파타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 만원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 서울 삼성산성지 2박 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 시 : 7. 12.(금) 18:00~14.(주일) 15:00
장 소 : 삼성산 피정의 집
강 사 : 마진우 요셉 신부 외 전국 유명 강사
내 용 :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 발 : 마산역 김안과 앞(10:30 출발)
문 의 : 010.7752.0194

■ ICPE 선교회 새로운 복음화 학교

일 시 : 8. 10.(토)~15.(목)
장 소 : 예수성심영성센터(부산 금정구)
강 사 : 프릿츠 마스카레나스
문 의 : 정종철 다마스 010.7535.9111

■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성음악교육과정

주 제 : 미사전례와 시간전례
일 시 : 8. 23.(금)~24.(토) 1박2일
마 감 : 8. 13.(화)
장 소 :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우이동 소재)
강 사 : 최호영 신부, 최대환 신부, 박재광
고승익, 송기창
참배 : 15만 원(숙식 및 교재 포함)
우리 1002-044-623614 박재광
문 의 : 010.4513.7605, 010.6395.1181
www.cecilkorea.org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5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645.9028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 samok1@cathms.or.kr
문 의 : 사목국 055.242.6776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 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 solace@cathms.or.kr
문 의 : 055.249.7002~3



직장인을 위한 향심기도(1박2일)

일 시 : 7. 13.(토) 10:00~14.(주일) 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향심기도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배 : 9만 원
문 의 : 055.221.1891



197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 시 : 7. 19.(금) 19:00~21.(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신 청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e-mail: chojs4418@korea.kr
● 198차 ME 주말 : 8. 30.(금)~9. 1.(주일)
● 20차 쉼주말 : 9. 21.(토)~22.(주일)
● 199차 ME 주말 : 11. 15.(금)~17.(주일)



농민주일 행사 안내

농민주일(7월 21일)을 맞이하여
농업을 지키고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
마산교구 내 **우리농 생활공동체**에서
모든 물품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가톨릭농민회원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로 식탁을 마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물품 : 연중 10% 할인판매 중입니다.
감자, 양파, 블루베리,
자두, 마늘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레	문 의
교 구	7. 8.(월) 19:00	월남동성당	행동하는 믿음(갈라 5:6)	김현조(스테파노, 전국협의회 고문)	이영민 신부(베드로, 삼위일체수도회)	010-5072-5612
창원지구	7. 8.(월) 19:00	반 송 성 당	고통의 해방	홍택훈(히지노, 제주교구)	안찬모 신부(아나시모, 삼위일체수도회)	010-9969-5340
진해지구	7. 8.(월) 19:00	중 앙 성 당	주님께서는 모든 이를 치유하신다	김재중(요셉, 광주 푸른군대 회장)	장성근 신부(에단)	010-7566-9441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7. 13.(토) 14:00, 7. 14.(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3015-1773	

SM 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10월 2일, 인솔자, 신부님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Raphael Club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9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마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천사

천사는 영적 존재다. 육체도 남녀구별도 나이도 무의미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기록엔 두 모습이 있다. 첫째는 날개가 없는 보통사람 모습이다. 평범한 남자의 형태를 취했다. 두 번째는 날개를 가진 특별한 자태다. 대표적인 것이 세라핌과 케루빔이다. 세라핌(Seraphim)은 하느님을 보좌하는 천사 중 서열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이사야 예언서에 처음 등장한다.(이사 6,2) 케루빔(Cherubim)은 둘째 서열 천사들이다. 유대인은 아담과 하와가 떠난 에덴을 이분들이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창세 3,24)

중세 이전 그림에는 천사들이 청년이며 날개가 없다. 날개를 지닌 천사는 중세 이후 그림에 등장한다. 유럽인 옷을 입은 우아한 자태다. 인간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가미된

것이다. 미카엘 천사는 갑옷과 함께 칼을 들었고 가브리엘과 라파엘은 자상한 남자의 모습이다. 천사는 하늘사자(天使者)란 뜻이다. 하늘의 명을 받고 심부름한다는 의미다. 사람이 죽으면 혼을 데려가는 이를 저승사자라 했다. 동양의 천사들이다. 히브리어 말은 말라흐(malah)며 직역하면 심부름꾼이다. 희랍어는 안젤로스(Angelos)로 번역했다. 파견된 자란 의미다. 라틴어 안젤루스와 영어 에인절(Angel)은 여기서 파생되었다.

유대인은 천사를 하느님의 분신으로 여겼다. 조상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기에 민족이 가능했다고 믿었다. 욥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란 표현까지 했다.(욥기 2,1) 그만큼 가깝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사탄 역시 원래는 천사였고 주님께 맞서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민간신앙이다. 이 항명 사건에서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외치며 수습한 인물이 미카엘이다. 그의 외침은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이 전승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

이 묵시록 12장이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대한 용을 미카엘이 쳐부순다. 묵시록의 용과 뱀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이들을 암시한다.

성경에 이름이 명시된 천사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세 분뿐이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천사도 많이 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마태 2,13) 사도를 옥에서 탈출시킨 천사,(사도 5,19) 희고 긴 옷을 입은 젊은이(마르 16,5) 등등. 천사에 대한 공식발표는 1215년 열린 4차 라테란 공의회가 처음이다. 하지만 유권해석을 내리진 않았다. 천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름만 허용했다. 다른 천사 이름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날 세 분 천사의 축일은 9월 29일이다. 원래 이날은 로마에 세워진 미카엘 대성당의 봉헌식이 있던 날이었다. 이날 세 분 천사를 함께 기리면서 축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빈곤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 칼럼

김현주 올리아나 ·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얼마 전, 사교육 실태를 다룬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최상위층만이 사는 '스카이 캐슬'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자녀의 명문대 합격만이 인생의 목표인 몇 가정들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와 허위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흥미를 끌었다. 입시 코드의 존재나 시험지 유출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식에 '투자'하는 모습은 비단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보직 부장 교사가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자녀의 성적이 올랐다는 의혹,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하여 적발된 사건, 의대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직원과 공모하여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려 해임된 사건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쉽게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2007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던 사교육 비율이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특히 소득별,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용어를 들으면 이렇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는 것 아닌

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당당하게 항변하던 한 친구가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좋은 부모의 조건이 '경제력'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칸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돈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어."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윤리와 정의, 평등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시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나 할까. 자유와 경쟁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많은 나라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빈부 격차를 줄이고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영화였다. 봉 감독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과 이들을 가르치는 '냄새'에 집중한다. 또 그 냄새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 그렇지 않으면 칼 맞을 수 있다고 세계에 경고하는 듯하여 섬뜩했다. 전체 구조를 모르는 채 율리리 자리다툼 하는 현실, 공생과 상생이 아닌 기생하며 살도록 강요하는 자본주의의 극한을 봐서인지 우울하고 계속 먹먹하다.